

2021 수능특강 운문편 고어·한자어 정리본

작품 이름	어휘	뜻	용례
정석가	계상이다	계십니다	딩하 돌하 당금에 계상이다
정석가	나난	뜻이 있지 않은 조흥구. 여음구.	삭삭기 세모레 벼랑에 나난 /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정석가	당금(當今)	지금	딩하 돌하 당금에 계상이다
정석가	디다	짓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정석가	딩1	금속 악기의 소리 혹은 금속 악기.	딩하 돌하 당금에 계상이다
정석가	딩2	정(鄭). '딩(鄭)'과 '돌(石)'을 합쳐 정석(鄭石)으로 봄.	딩하 돌하 당금에 계상이다
정석가	-리잇가	-갯습니까	신(信)잇단 그츠리잇가
정석가	말다	재단하다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정석가	박오이다	박습니다	철사(鐵絲)로 주름 박오이다
정석가	사교이다	새깁니다	옥(玉)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정석가	삭삭기	바삭바삭 소리	삭삭기 세모레 벼랑에 나난
정석가	세모래	가는(細) 모래.	삭삭기 세모레 벼랑에 나난
정석가	선왕성디	선왕선대(先王聖代).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선황성디에 노니 ⁹ 와지이다
정석가	심고이다	심습니다	구운 밤 닷 되를 심고이다
정석가	-아지이다, -어지이다	공손히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선황성디에 노니 ⁹ 와지이다 / 유덕(有德)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
정석가	여신들	살아간들	즈문 해를 외오곰 여신들
정석가	접주(接柱)하다	접붙이다	바위 위에 접주(接柱)하요이다
정석가	즈문	천(千).	즈문 해를 외오곰 여신들
정석가	철릭	옛날에 무관이 입던 관복.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정석가	털초(鐵草)	무쇠로 된 풀.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사
정석가	한쇼1	큰(하다) 쇼.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정석가	한쇼2	황쇼.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흥망(興亡)이 유수(有數)ᄃᆞ니	만월대(滿月臺)	개성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있는 고려의 왕궁 터.	흥망(興亡)이 유수(有數)ᄃᆞ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ᄃᆞ로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ᄃᆞ니	목적(牧笛)	목자나 목동이 부는 피리.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흥망(興亡)이 유수(有數)ᄃᆞ니	유수(有數)ᄃᆞ다	하늘이 정한 운수에는 순서가 있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ᄃᆞ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ᄃᆞ로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ᄃᆞ니	추초(秋草)	가을철의 풀.	흥망(興亡)이 유수(有數)ᄃᆞ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ᄃᆞ로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ᄃᆞ니	흥망(興亡)	흥하고 망함.	흥망(興亡)이 유수(有數)ᄃᆞ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ᄃᆞ로다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의구(依舊)ᄃᆞ다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다.	산천(山川)은 의구(依舊)ᄃᆞ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었다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인걸(人傑)	특히 뛰어난 인재(人材).	산천(山川)은 의구(依舊)ᄃᆞ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었다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태평연월(太平烟月)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편안한 세월.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쏜이런가 ᄃᆞ노라
동동(動動)	곰배에	신령님께	덕(德)일랑 곰배에 받잡고
동동(動動)	님배에	님에게	복(福)일랑 님배에 받잡고
동동(動動)	-사오이다(-소이다)	동작이나 서술을 나타내는 높임의 종결 어미	나아라 오소이다
동동(動動)	나릿물	넋물	정월 나릿물은
동동(動動)	누리	세상	누리 가운데 나곤
동동(動動)	하	시여, 이시여.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호격 조사.	몸하, 호올로 념셔
동동(動動)	녀다	살아가다	몸하, 호올로 념셔
동동(動動)	허다	켜다	아으 높이 현 등(燈)불 다호라 / 아으 별헤 버린 빛 다호라
동동(動動)	다호라	답구나	아으 높이 현 등(燈)불 다호라 /

			아으 별헤 버린 빗 다호라
동동(動動)	줏	모습이나 모양	만인(萬人) 비취실 좃이샷다 / 남이 부를 좃을 지녀 나샷다
동동(動動)	-샷다	-시도다	만인(萬人) 비취실 좃이샷다 / 남이 부를 좃을 지녀 나샷다
동동(動動)	무슴다	무슨 일로	무슴다녹사(錄事)님은
동동(動動)	녹사(錄事)	고려때 벼슬 이름	무슴다 녹사(錄事)님은
동동(動動)	즈믄	천(千).	즈믄 해를 장존(長存)하실
동동(動動)	장존(長存)하다	오래 살다.	즈믄 해를 장존(長存)하실
동동(動動)	-습노이다	-버니다.	약이라 받잡노이다
동동(動動)	백종(百種)	백중날'을 이르는 다른 말.	아으 백종(百種) 배(排)하여 두고
동동(動動)	배(排)하다	별이다	아으 백종(百種) 배(排)하여 두고
동동(動動)	바랏	보리수나무	아으 저미연 바랏 다호라
동동(動動)	봉당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를 흙바닥 그대로 둔 곳.	십일월 봉당 자리에
동동(動動)	슌다	슬퍼하다	슬할 살아온저
동동(動動)	스식옴	여이고	고운 님 스퓌옴 념서
동동(動動)	나알	진상할	아으 나알 반(盤)에저 다호라
동동(動動)	저	젓가락	아으 나알 반(盤)에저 다호라
동동(動動)	얼이노니	올리노니	님의 앞에 들어 얼이노니
동동(動動)	무르압노이다	무릅니다	손이 가져다 무르압노이다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이화(梨花)	배나무의 꽃.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	'은하'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은하수.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삼경(三更)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셋째 부분.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자규(子規)	두견과의 새. 두견.	일지 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나 마는
시니 흐르는 골에	바회	바위.	니 흐르는 골에 바회 지혀 초당(草堂) 삼고
시니 흐르는 골에	초당(草堂)	역새나 짚 따위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채.	니 흐르는 골에 바회 지혀 초당(草堂) 삼고
시니 흐르는 골에	건곤(乾坤)	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건곤(乾坤)이 날드려 닐으기를 함기 늣즈 흥더라
시니 흐르는 골에	니르다	이르다	건곤(乾坤)이 날드려 닐으기를 함기 늣즈 흥더라
만흥(漫興)	뛰집	초가집.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흥니
만흥(漫興)	운논다	비웃는다	그 모른 놈들은 운논다 흥다마는
만흥(漫興)	어리다	어리석다	어리고 하암의 뜻의논 내 분(分)인가 흥노라
만흥(漫興)	하암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어리고 하암의 뜻의논 내 분(分)인가 흥노라
만흥(漫興)	알마초	알맞게	보리밥 풋늣 물을 알마초 머근 후에
만흥(漫興)	몹궂	물가	바회긋 몹궂의 슬궂지 노니노라
만흥(漫興)	슬궂지	실컷. 한껏.	바회긋 몹궂의 슬궂지 노니노라
만흥(漫興)	녀나믄	다른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만흥(漫興)	둥다	좋다	말슴도 우웸도 아녀도 몬내 도하흥노라
만흥(漫興)	삼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의미한다.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닛다 흥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흥라
만흥(漫興)	만승(萬乘)	천자 또는 천자의 자리.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닛다 흥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흥라
만흥(漫興)	소부(巢父)	요임금 때의 은자(隱者).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숨어 살아 소부라 불렀다. 허유가 귀를 씻은 물이 더럽다 하여 건너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약똥더라

만흥(漫興)	허유(許由)	요임금 때의 은자(隱者), 기산에 숨어 표주박 한 개로 물을 마시고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살았다. 요임금이 그의 소문을 듣고 천하를 물려주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을 들은 귀가 더럽다고 생각하여 못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고 한다.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약뚫더라
만흥(漫興)	낙뚫더라	약앓더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약뚫더라
만흥(漫興)	님천한흥(林泉閑興)	자연을 즐기는 한가로운 즐거움.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만흥(漫興)	성	성격. 성질.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릅실샤
만흥(漫興)	덕희다	지키다	다만당 도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희라 하시도다
님이 오마 허거늘	보선	버선	(전략)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후략)
님이 오마 허거늘	곰비임비	곰비임비의 옛말. 곰비임비: 물건이 거듭 쌓이거나 일이 계속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	(전략)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 천방 (후략)
님이 오마 허거늘	워령충창	급히 달리는 발소리.	(전략) 즌 디 무른 디 곱희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후략)
님이 오마 허거늘	상년(上年)	이해의 바로 앞의 해. 작년.	(전략) 겹눈을 흘깃 보니 상년 칠월 열사 혼날 골가 벽긴 주추리 삼대 솔드리도 날 소겨다 (후략)
님이 오마 허거늘	주추리 삼대	씨를 받느라고 껍질을 벗겨 세워 둔 삼의 줄기.	(전략) 겹눈을 흘깃 보니 상년 칠월 열사 혼날 골가 벽긴 주추리 삼대 솔드리도 날 소겨다 (후략)
님이 오마 허거늘	모쳐라	마침	모쳐라 밤일식만정 형여 낮이런들 놈 우일 번후과라
나무도 바히 돌도 업슨 뫼헤	나모	나무	나모도 바히 돌도 업슨 뫼헤 매게 쫓친 가토리 안과
나무도 바히 돌도 업슨 뫼헤	쫓치이다	쫓기다	나모도 바히 돌도 업슨 뫼헤 매게 쫓친 가토리 안과
나무도 바히 돌도 업슨 뫼헤	가토리	까투리	나모도 바히 돌도 업슨 뫼헤 매게 쫓친 가토리 안과
나무도 바히 돌도 업슨 뫼헤	농총	뚫 줄	대천(大川) 바다 한가온대 일천 석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농총도 근코 (후략)
사미인곡(思美人曲)	삼기다	생기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사미인곡(思美人曲)	점다	어리다. 젊다.	나 허나 점어 잇고 님 허나 날 괴시니
사미인곡(思美人曲)	괴다	사랑하다	나 허나 점어 잇고 님 허나 날 괴시니
사미인곡(思美人曲)	노여	전혀	이 므음 이 스랑 견졸 디 노여 업다
사미인곡(思美人曲)	훈디	한데	평싱(平生)애 원(願)허요디 훈디 네자 허얏더니
사미인곡(思美人曲)	녀다	살다	평싱(平生)애 원(願)허요디 훈디 네자 허얏더니
사미인곡(思美人曲)	광한년(廣寒殿)	달나라에 있다는 궁전. 임금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엇그제 님을 뫼셔 광한년(廣寒殿)의 올났더니
사미인곡(思美人曲)	하계(下界)	인간 세상.	그 더디 엇디허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사미인곡(思美人曲)	디다	떨어지다.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사미인곡(思美人曲)	염냥(炎涼)	더위와 서늘함. 곧 계절의 순환을 의미한다.	염냥(炎涼)이 재를 아라 가는 듯 고태 오니
사미인곡(思美人曲)	하다	많다	دت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사미인곡(思美人曲)	-르샤	-구나	دت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사미인곡(思美人曲)	건똥	잠깐	동풍(東風)이 건똥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사미인곡(思美人曲)	동풍(東風)	봄바람을 의미한다.	동풍(東風)이 건똥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사미인곡(思美人曲)	적설(積雪)	쌓인 눈.	동풍(東風)이 건똥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사미인곡(思美人曲)	벼말	머리말	황혼(黃昏)의 들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사미인곡(思美人曲)	-저	-고자	더 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 오저
사미인곡(思美人曲)	녹음(綠陰)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나 수풀. 또는 그 나무의 그늘. 여름을 알리는 소재이다.	꽃 디고 새넙 나니 녹음(綠陰)이 실렸논디
사미인곡(思美人曲)	나위(羅幃)	엷은 비단으로 만든 휘장.	나위(羅幃)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뷔여 있다
사미인곡(思美人曲)	슈막(繡幕)	수놓은 장막.	나위(羅幃)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뷔여 있다
사미인곡(思美人曲)	뷔다	비다. 비어 있다.	나위(羅幃)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뷔여 있다
사미인곡(思美人曲)	부용(芙蓉)	연꽃의 꽃.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사미인곡(思美人曲)	-고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굿득 시름 한디 날은 엷디 기똥던고
사미인곡(思美人曲)	견화이서	재어서	금자히 견화이서 님의 옷 지어 내니
사미인곡(思美人曲)	수품(手品)	손을 놀려 무엇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 재주.	손을 놀려 무엇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 재주.
사미인곡(思美人曲)	제도(制度)	규격과 모양	수품(手品)은 ㄱ니와 제도(制度)도 ㄱ줄시고
사미인곡(思美人曲)	ㄱ줄시고	갖추었구나	수품(手品)은 ㄱ니와 제도(制度)도 ㄱ줄시고
사미인곡(思美人曲)	머흘다	험하고 사납다.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사미인곡(思美人曲)	니다	가다. 다니다.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사미인곡(思美人曲)	위루(危樓)	높다란 누각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넙(水晶簾)을 거든마리
사미인곡(思美人曲)	슈정넙(水晶簾)	수정 구슬을 꿰어서 만든 아름다운 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넙(水晶簾)을 거든마리
사미인곡(思美人曲)	청광(淸光)	맑은 빛. 여기서는 달빛을 의미한다.	청광(淸光)을 픽워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저
사미인곡(思美人曲)	봉황누(鳳凰樓)	임이나 임금이 계신 곳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청광(淸光)을 픽워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저
사미인곡(思美人曲)	팔황(八荒)	온 세상	누(樓) 우히 거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사미인곡(思美人曲)	심산궁곡(深山窮谷)	깊은 산속의 험한 골짜기.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낫 ㄱ티 밍그쇼서
사미인곡(思美人曲)	점낫 ㄱ티	한낮같이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낫 ㄱ티 밍그쇼서
사미인곡(思美人曲)	건곤(乾坤)	하늘과 땅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빅설(白雪)이 훈 비친 제
사미인곡(思美人曲)	폐식(閉塞)	겨울에 천지가 얼어붙어 생기가 막힘.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빅설(白雪)이 훈 비친 제
사미인곡(思美人曲)	쇼상(瀟湘) 남반(南畔)	소상강의 남쪽.	쇼상(瀟湘) 남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사미인곡(思美人曲)	치오미	추위	쇼상(瀟湘) 남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사미인곡(思美人曲)	고처(高處)	높은 곳	옥누(玉樓) 고처(高處)야 더욱 날너 므슴 허리
사미인곡(思美人曲)	니르다	이르다	옥누(玉樓) 고처(高處)야 더욱 날너 므슴 허리
사미인곡(思美人曲)	양춘(陽春)	따뜻한 봄.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 고저
사미인곡(思美人曲)	모첨(茅簷)	초가집 처마	모첨(茅簷) 비친 히를 옥누(玉樓)의 올리 고저
사미인곡(思美人曲)	홍상(紅裳)	짙고 산뜻한 붉은빛 치마.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쉼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사미인곡(思美人曲)	니미춸다	여미어 입다.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쉼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사미인곡(思美人曲)	취슈(翠袖)	푸른 소매.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사미인곡(思美人曲)	일모(日暮) 슈죽(脩竹)	해 저물 무렵 긴 대나무에 의지함.	일모(日暮) 슈죽(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사미인곡(思美人曲)	험	생각. 헤아림.	일모(日暮) 슈죽(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사미인곡(思美人曲)	다툰	짧은	다툰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사미인곡(思美人曲)	디다	지다. 이올다.	다툰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사미인곡(思美人曲)	던공후(鈿箏篴)	자개로 장식한 공후.	청등(靑燈) 거론 것티 던공후(鈿箏篴) 노 하두고
사미인곡(思美人曲)	बाट	괴다. 받다. 받치다.	꿈이나 님을 보려 톡 ㅅㅅ고 비겨시니
사미인곡(思美人曲)	양금(鴛衾)	원앙을 수놓은 이불	양금(鴛衾)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사미인곡(思美人曲)	저근덧	잠시라도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사미인곡(思美人曲)	췌터시니	사무치니	ㅅㅅ의 미쳐 이셔 골슈(骨髓)의 췌터시니
사미인곡(思美人曲)	편작(扁鵲)	중국 전국 시대의 명의(名醫)로, 뛰어난 의사의 대명사.	편작(扁鵲)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엇디히리
사미인곡(思美人曲)	식어디여	죽어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사미인곡(思美人曲)	범나비	호랑나비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사미인곡(思美人曲)	곳나모	꽃나무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사미인곡(思美人曲)	안니다	앞으며 가며 하다.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사미인곡(思美人曲)	놀애	날개	향 므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만언사(萬言詞)	탈망건	머리에 쓴 망건을 벗음.	탈망건 갓 숙이고 훌중치막 띠 끄르고
만언사(萬言詞)	중치막	예전에,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가 소창옷 위에 덧입던 옷.	탈망건 갓 숙이고 훌중치막 띠 끄르고
만언사(萬言詞)	총	짚신의 앞쪽	총만 남은 현 짚신에 세살부채 차면(遮面)하고
만언사(萬言詞)	세살부채	살이 가느다란 부채	총만 남은 현 짚신에 세살부채 차면(遮面)하고
만언사(萬言詞)	차면(遮面)하다	얼굴을 가리다.	총만 남은 현 짚신에 세살부채 차면(遮面)하고
만언사(萬言詞)	남초	담뱃잎	남초 없는 빈 담뱃대 소일(消日) 조로 가지고서
만언사(萬言詞)	소일(消日)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냄.	남초 없는 빈 담뱃대 소일(消日) 조로 가지고서
만언사(萬言詞)	한단치보(邯鄲稚步)	한단지보(邯鄲之步.) 함부로 자기 본분을 버리고 남의 행위를 따라 하면 두 가지 모두 잃는다는 것을 이르는 말.	한단치보(邯鄲稚步) 꿈인가 남양초려 큰 꿈인가
만언사(萬言詞)	남양초려	‘남양’은 중국 형주의 지명이며 ‘초려’는 ‘짚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을 의미함. 남양에서 제갈량은 초려를 짓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잡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렸음.	한단치보(邯鄲稚步) 꿈인가 남양초려 큰 꿈인가
만언사(萬言詞)	화서몽	황제가 꾸는 꿈으로, 좋은 꿈을 일컫는 말.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만언사(萬言詞)	남가일몽(南柯一夢)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만언사(萬言詞)	흉사(凶事)	흉하고 언짢은 일.	몽중 흉사(夢中凶事) 이러하니 새벽 대길(大吉) 하오리다
만언사(萬言詞)	대길(大吉)	운이 매우 좋음. 또는 일이 매우 상서로움.	몽중 흉사(夢中凶事) 이러하니 새벽 대길(大吉) 하오리다
만언사(萬言詞)	아해	아이	철없는 어린아해 소 같은 젊은 계집
만언사(萬言詞)	귀양다리	귀양살이하는 사람을 낮잡아	손가락질 가라치며 귀양다리 온다 하니

		이르는 말.	
만언사(萬言詞)	장안시상	서울인 '장안 거리'를 의미한다.	장안시상 열두 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만언사(萬言詞)	옥호	옥으로 된 작은 병.	옥호 금준은 다리다리 배반(杯盤)이요
만언사(萬言詞)	금준	금으로 만든 항아리.	옥호 금준은 다리다리 배반(杯盤)이요
만언사(萬言詞)	배반(杯盤)	술상에 차려놓은 그릇. 또는 거기에 담긴 음식.	옥호 금준은 다리다리 배반(杯盤)이요
만언사(萬言詞)	중촌(中村)	중인(中人)들이 살던 서울 성안의 한복판에 있던 구역. 지금의 을지로와 종로 사이에 있었다.	중촌(中村)을 올라 광통다리 굽은 다리 수표(水標)다리
만언사(萬言詞)	마전(馬塵)	마구(馬具)를 파는 가게.	효경(孝經)다리 마전(馬塵)다리 아랑 위젯다리라
만언사(萬言詞)	수종(水腫)	신체의 조직 간격이나 체강(體腔) 안에 림프액, 장액(漿液) 따위가 많이 괴어 있어 몸이 붓는 병.	수종다리 습다린가 천생이 병신인가
만언사(萬言詞)	습	습진	수종다리 습다린가 천생이 병신인가
만언사(萬言詞)	느려치다	늘어뜨리다	두 손길 느려치면 다리에 가까오니
만언사(萬言詞)	장가락	장타령. 동냥하는 사람이 장이나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침에
만언사(萬言詞)	비부(婢夫)	계집종의 남편.	내 허리 가이없어 비부(婢夫)에게 절이로다
만언사(萬言詞)	차서(次序)	순서 있게 구분하여 벌여 나가는 관계.	내 인사 차서(次序) 없이 종에게 존대로다
만언사(萬言詞)	적객(謫客)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가져가오 불상하고 적객(謫客) 동냥 예사오니
만언사(萬言詞)	수운(輸運)	운송이나 운반보다 큰 규모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물건을 실어 나름.	어느 노비 수운(輸運)하리 아모려나 저 보리라
만언사(萬言詞)	변통	형편과 경우에 따라서 일을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함.	주변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라
만언사(萬言詞)	긴등 거리	길게 뻗어 나간 언덕의 등성이.	긴등 거리 제법이라 하 괴이치 아니하다
만언사(萬言詞)	긴 등거리	등만 덮을 만하게 걸쳐 입는 홑옷. 베나 무명으로 깎이 없고 소매가 짧거나 없게 만든다	긴등 거리 제법이라 하 괴이치 아니하다
만언사(萬言詞)	존전(尊前)	신불(神佛)이나 존귀한 사람의 앞.	존전(尊前)의 출입(出入)인가 한출첨배 하느고야
만언사(萬言詞)	한출첨배	몹시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심.	존전(尊前)의 출입(出入)인가 한출첨배 하느고야
만언사(萬言詞)	신날	짚신의 세로 줄	짚 한 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 보니
만언사(萬言詞)	조희	종이	조희 노도 모르거든 샷기 꼬기 어이하리
만언사(萬言詞)	샷기	새끼	조희 노도 모르거든 샷기 꼬기 어이하리
만언사(萬言詞)	천수만한(千愁萬恨)	이것저것 슬퍼하고 원망함. 또는 그런 슬픔과 한.	자리 노를 배와 꼬니 천수만한 이내 마음
갑민가(甲民歌)	어저	어. 아차.	어저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갑민가(甲民歌)	군사 도망(軍士逃亡)	군대에서 도망침.	네 행색 보아하니 군사 도망(軍士逃亡) 네로고나
갑민가(甲民歌)	잠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홑바지.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갑민가(甲民歌)	곱장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척추에 장애가 있어 등이 굽고 큰 혹 같은 것이 볼록 튀어나온 사람.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갑민가(甲民歌)	전태발이	다리를 저는 사람.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갑민가(甲民歌)	타도타관(他道他官)	자신이 속한 곳이 아닌 다른 도와 다른 고을.	내 고을의 양반(兩班) 사람 타도타관(他道他官) 옮겨 살면
갑민가(甲民歌)	본토(本土)	본디의 고향.	천(賤)히 되기 예사거든 본토(本土) 군정(軍丁) 싫다 하고

갑민가(甲民歌)	군정(軍丁)	군적(軍籍)에 있는 지방의 장정.	천(賤)히 되기 예사거든 본토(本土) 군정(軍丁) 싫다 하고
갑민가(甲民歌)	돈피(獫皮)	담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	칠팔월에 삼을 개고 구시월에 돈피(獫皮) 잡아
갑민가(甲民歌)	공채(公債)	공금(公金)을 소비하거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하여 진 빚.	공채(公債) 신역(身役) 값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갑민가(甲民歌)	신역(身役)	나라에서 부과하는 군역과 부역.	공채(公債) 신역(身役) 값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갑민가(甲民歌)	초관(哨官)	조선 시대에, 한 초(哨)를 거느리던 종구품 무관 벼슬.	어와 생원인지 초관(哨官)인지
갑민가(甲民歌)	갑민(甲民)	갑산에 사는 백성.	이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소냐
갑민가(甲民歌)	시종신(侍從臣)	임금 곁에서 문학으로 보필하던 벼슬아치.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侍從臣)을 다니다가
갑민가(甲民歌)	전가사변(全家徙邊)	죄인의 가족 모두를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의 변경에 옮겨 살게 하던 일.	남의 시기 참소 입어 전가사변(全家徙邊)한 후에
갑민가(甲民歌)	읍중(邑中)	조선 시대에, 관찰 관아가 아닌 지방 관아가 있던 마을.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邑中) 구실 첫째로다
갑민가(甲民歌)	유사(有司)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유사(有司) 장의(掌儀)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갑민가(甲民歌)	장의(掌儀)	조선 말기에, 장례원과 예식원에 속하여 나라의 여러 가지 예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유사(有司) 장의(掌儀)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갑민가(甲民歌)	채지	하급 관리가 채용될 때에 받는 임명장.	유사(有司) 장의(掌儀)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갑민가(甲民歌)	모해(謀害)	피를 써서 남을 해침.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怨讐人)의 모해(謀害)로써
갑민가(甲民歌)	강정(降定)	무관(武官)에 대하여 별로 벼슬을 낮추어서 군역(軍役)을 시키던 일. 또는 그런 징벌.	군사 강정(降定)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험어나니
갑민가(甲民歌)	충군(充軍)	조선 시대에, 죄를 범한 자를 별도로 군역에 복무하게 하던 제도.	좌우 전후 많은 가족 차차 충군(充軍) 되거고야
갑민가(甲民歌)	누대봉사(累代奉祀)	여러 대의 조상의 제사를 받듦.	누대봉사(累代奉祀)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어 있고
갑민가(甲民歌)	의법(依法)	법에 의거함.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三兩五錢) 돈피 두 장 의법(依法)이라
갑민가(甲民歌)	석송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이름.	해마다 맞춰 무니 석송인들 당할소냐
갑민가(甲民歌)	오가	인삼과 같이 두릅나무과의 식물이며, 잎이 인삼과 유사하다.	인삼 짝은 전혀 없고 오가잎이 날 속인다
갑민가(甲民歌)	고추바람	살을 에는 듯 매섭게 부는 차가운 바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릴없이 헛되이 와서 팔구월 고추바람
갑민가(甲民歌)	축수(祝手)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빚.	하나님께 축수(祝手)하며 산신(山神)님께 발원(發願)하여
갑민가(甲民歌)	발원(發願)	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빚. 또는 그 소원.	하나님께 축수(祝手)하며 산신(山神)님께 발원(發願)하여
갑민가(甲民歌)	물채줄	담비를 사냥하기 위한 사냥 도구.	물채줄을 갖춰 꽃고 사망 일기 원하되
갑민가(甲民歌)	사망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운수.	물채줄을 갖춰 꽃고 사망 일기 원하되
갑민가(甲民歌)	삼지연(三池淵)	함경북도 무산군 삼장면에 있는 네 개의 큰 호수.	빈손으로 돌아서니 삼지연(三池淵)이 잘참이라
갑민가(甲民歌)	양진(糧盡)	식량이 다함.	양진(糧盡)하고 의박(衣薄)하니 앞의 근심 다 떨치고
갑민가(甲民歌)	의박(衣薄)	옷이 보잘것없음.	양진(糧盡)하고 의박(衣薄)하니 앞의 근심 다 떨치고

갑민가(甲民歌)	지사위한(至死爲限)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아니하고 뻔대어 나감.	목숨 살려 욕심하여 지사위한(至死爲限) 길을 헤여
갑민가(甲民歌)	계초명(鷄初鳴)	닭의 첫 울음.	계초명(鷄初鳴)이 이윽하고 인가적적(人家寂寂) 한잠일레
갑민가(甲民歌)	언불출구(言不出口)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하다.	언불출구(言不出口) 넘어지니 더운 구들아랫목에
갑민가(甲民歌)	전토가장(田土家藏)	밭과 집안 살림.	모든 신역(身役) 걱정하라 전토가장(田土家藏) 진매(盡賣)하여
갑민가(甲民歌)	진매(盡賣)	모두 팔마.	모든 신역(身役) 걱정하라 전토가장(田土家藏) 진매(盡賣)하여
갑민가(甲民歌)	파기소(疤痕所)	신분을 확인하는 관청.	사십륙량(四十六兩) 돈 가지고 파기소(疤痕所) 찾아가니
갑민가(甲民歌)	중군(中軍)	조선 시대에, 각 군영(軍營)에서 대장이나 절도사, 통제사 등의 밑에서 군대를 통할하던 장수.	중군파총(中軍把總) 호령하되 우리사또(使徒) 분부내(分付內)에
갑민가(甲民歌)	파총(把總)	조선 선조 27년(1594)에 각 군영에 둔 종사품 무관 벼슬.	중군파총(中軍把總) 호령하되 우리사또(使徒) 분부내(分付內)에
갑민가(甲民歌)	원정(原情)	사정을 하소연함.	돈 가지고 물러나와 원정(原情)지어 발괄(自适)하니
갑민가(甲民歌)	발괄하다	자기편을 들어 달라고 남에게 부탁하거나 하소연하다.	돈 가지고 물러나와 원정(原情)지어 발괄(自适)하니
갑민가(甲民歌)	물위변소(勿謂煩訴)	번거로운 소송.	물위변소(勿謂煩訴) 제사(白辭)하고 군노장교(軍奴將校) 차사(差使)놓아
갑민가(甲民歌)	제사(白辭)하다	거절당하다.	물위변소(勿謂煩訴) 제사(白辭)하고 군노장교(軍奴將校) 차사(差使)놓아
갑민가(甲民歌)	원행치장(遠行治裝)	먼길을 떠날 채비.	성화(星火)같이 재촉하니 노부모의 원행치장(遠行治裝)
갑민가(甲民歌)	장근(將近)	거의	십여일 장근(將近)이라 성화(星火)같은 관가분부(官家分付)
갑민가(甲民歌)	차지(次知)	상전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던 하인. 또는 남을 대신하여 대가를 받고 형벌을 받던 사람.	차지(次知)잡아 가두었네 불쌍할사 병든 처(妻)는
갑민가(甲民歌)	영어(囹圄)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영어중(囹圄中)에 던지어서 결항치사(結項致死) 하단 말가
갑민가(甲民歌)	결항치사(結項致死)	목을 매달어 죽음. 또는죽게 함.	영어중(囹圄中)에 던지어서 결항치사(結項致死) 하단 말가
갑민가(甲民歌)	불성인사	인사불성(人事不省). 제 몸에 벌어지는 일을 모를 만큼 정신을 잃은 상태.	불성인사 누웠으니 기절하온 탓이로다
갑민가(甲民歌)	사묘(祠廟)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	사묘(祠廟)모셔 땅에 묻고 애끓도록 통곡하니
갑민가(甲民歌)	조작(鳥雀)	참새 따위의 작은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무지미물(無知微物) 못조작(鳥雀)이 저도 또한 설리온다
갑민가(甲民歌)	막중변지(邊地)	아주 변방의 땅.	막중변지(邊地) 우리인생 나라 백성 되어 나서
갑민가(甲民歌)	화외민(化外民)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는 사람.	군사(軍士)싫다 도망하면 화외민(化外民)이 되려니와
갑민가(甲民歌)	유리무정(流離無定)	정한 곳 없이 떠돌게 되.	또 금년(今年)이 돌아오니 유리무정(流離無定) 하노매라
갑민가(甲民歌)	구중천문(九重天門)	하늘에 있는 아홉 개의 무거운 문. 임금의 계신 곳을 의미함.	나라님께 아뢰자니 구중천문(九重天門) 멀어 있고
갑민가(甲民歌)	요순(堯舜)	중국 고사의 요 임금과 순 임금을 가리킴. 성군을 의미함.	요순(堯舜) 같은 우리 성주(聖主) 일월(日月)같이 밝으신들
갑민가(甲民歌)	불점성화(不沾聖化)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함.	불점성화(不沾聖化) 이 극변(極邊)에 복분하(覆盆下)라 비칠소나
갑민가(甲民歌)	복분하(覆盆下)	엎어진 항아리. 임금의 덕이	불점성화(不沾聖化) 이 극변(極邊)에 복분

		미치지 못하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覆盆下)라 비철소나
갑민가(甲民歌)	북청 부사(北靑府使)	북청을 다스리는 사도.	북청 부사(北靑府使) 뉘실런고 성명(姓名)은 잠간 잊었네
갑민가(甲民歌)	안보(安保)	편안히 보전됨. 또는 편안히 보전함.	많은 군정 안보(安保)하고 백골 도망(白骨逃亡) 원통함 풀고
갑민가(甲民歌)	초관(哨官)	조선 시대에, 한 초(哨)를 거느리던 종구품 무관 벼슬.	각대 초관(各隊哨官) 여러 신역 대소민호(大小民戶) 나눠 걸으니
갑민가(甲民歌)	인읍(隣邑)	인접한 마을.	인읍(隣邑) 백성 이 말 듣고 남부여대(男負女戴) 모여드니
갑민가(甲民歌)	남부여대(男負女戴)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읍(隣邑) 백성 이 말 듣고 남부여대(男負女戴) 모여드니
갑민가(甲民歌)	군정 허오(軍丁虛伍)	군적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없던 지방의 장정.	군정 허오(軍丁虛伍) 없어지고 민호(民戶) 점점 늘어 간다
갑민가(甲民歌)	민호(民戶)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	군정 허오(軍丁虛伍) 없어지고 민호(民戶) 점점 늘어 간다
갑민가(甲民歌)	영문(營門)	조선 시대에,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	북청 일례(北靑一例) 하여지라 영문(營門) 의송(議送) 정(呈)탄 말가
갑민가(甲民歌)	의송(議送)	조선 시대에,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던 민원서류.	북청 일례(北靑一例) 하여지라 영문(營門) 의송(議送) 정(呈)탄 말가
갑민가(甲民歌)	정(呈)하다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 따위를 제출하다.	북청 일례(北靑一例) 하여지라 영문(營門) 의송(議送) 정(呈)탄 말가
갑민가(甲民歌)	제사(題辭)	관부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에 쓰던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	본읍(本邑) 맡겨 제사(題辭) 맡아 본 관아에 부치온즉
갑민가(甲民歌)	불문시비(不門是非)	서류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음.	불문시비(不門是非) 올려 매고 형문(刑問) 한 번 맞았던 말가
갑민가(甲民歌)	형문(刑問)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	불문시비(不門是非) 올려 매고 형문(刑問) 한 번 맞았던 말가
갑민가(甲民歌)	천신만고(千辛萬苦)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	천신만고(千辛萬苦) 놓여나서 고향 생애 다 떨치고
갑민가(甲民歌)	하직(下直)	먼 길을 떠날 때 웃어른께 작별을 고하는 것.	이웃 친구 하직(下直) 없이 부로휴유(扶老携幼) 한밤중에
갑민가(甲民歌)	부로휴유(扶老携幼)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이는보살핌.	이웃 친구 하직(下直) 없이 부로휴유(扶老携幼) 한밤중에
갑민가(甲民歌)	후치령(厚峙嶺)	함경남도 북청군 이곡면과 풍산군 안산면 사이에 있는 고개.	후치령 길 비켜 두고 금창령(金昌嶺)을 허위 넘어
갑민가(甲民歌)	단천(端川)	함경남도 단천군에 있는 읍. 군청 소재지이다.	단천(端川)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聖大山)을 넘어서면
갑민가(甲民歌)	거처호부(居處好否)	거처하는 곳의 좋고 나쁨은 상관 없음을 의미함.	북청 땅이 그 아닌가 거처호부(居處好否) 다 떨치고
갑민가(甲民歌)	가속(家屬)	한 집안에 속한 가족.	모든 가속(家屬) 안보하고 신역 없는 군사 되세
갑민가(甲民歌)	이친기묘(離親棄墓)	내 곧 신역 이리하면 이친기묘(離親棄墓) 하올소나	친족들과 이별하고 조상의 묘는 버림.
갑민가(甲民歌)	군정(軍丁)	군적(軍籍)에 있는 지방의 장정.	군정도탄(軍丁塗炭) 그려다가 임금님께 올리리라
갑민가(甲民歌)	도탄(塗炭)	진흙탕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는 뜻으로, 생활이 몹시 곤궁하고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군정도탄(軍丁塗炭) 그려다가 임금님께 올리리라
갑민가(甲民歌)	영로(嶺路)	고개를 넘나들도록 나 있는 길.	이 영로(嶺路)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치리라
집장가(執杖歌)	집장(執杖)	곤장을 잡음. 또는 그런 사람.	집장 군노(執杖軍奴) 거동(舉動)을 바라

집장가(執杖歌)	군노(軍奴)	‘군뇌(軍牢)’의 잘못된 음. 군뇌(軍牢)는 군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사를 뜻함.	집장 군노(執杖軍奴) 거동(舉動)을 보라
집장가(執杖歌)	동틀	형틀	춘향을 동틀에다 쫓그라니 올려 매고
집장가(執杖歌)	형장(刑杖)	예전에, 죄인을 신문할 때에 쓰던 몽둥이.	형장(刑杖)을 한 아름을 디립다 덥석 안아다가
집장가(執杖歌)	나졸	조선 시대에, 지방 관아에 속한 사령(使令)과 군뢰를 통틀어 이르던 말.	좌우 나졸들이 집장(執杖) 배립(排立)하여
집장가(執杖歌)	배립(排立)	줄지어서 죽 늘어섬.	좌우 나졸들이 집장(執杖) 배립(排立)하여
집장가(執杖歌)	안전(案前)	존귀한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의 앞.	바로바로 아릴 말씀 없소 사또 안전(案前)에 죽여만 주오
집장가(執杖歌)	구곡지수(九曲之水)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물	맑고 맑은 구곡지수(九曲之水)에다가 풍기덩실 지두덩실
형장가(刑杖歌)	형장(刑杖)	예전에, 죄인을 신문할 때에 쓰던 몽둥이.	형장(刑杖) 태장(笞杖) 삼(三)모진 도리매로
형장가(刑杖歌)	태장(笞杖)	태형(笞刑)과 장형(杖刑)을 아울러 이르는 말.	형장(刑杖) 태장(笞杖) 삼(三)모진 도리매로
형장가(刑杖歌)	도리매	곤장	형장(刑杖) 태장(笞杖) 삼(三)모진 도리매로
형장가(刑杖歌)	맹장(猛杖)	매를 몹시 침.	삼십도(三十度)에 맹장(猛杖)하니 일촌간장(一寸肝藏) 다 녹는다
형장가(刑杖歌)	일촌간장(一寸肝腸)	한 토막의 간과 창자라는 뜻으로, 애달프거나 애가 타는 마음을 이르는 말.	삼십도(三十度)에 맹장(猛杖)하니 일촌간장(一寸肝藏) 다 녹는다
형장가(刑杖歌)	지엄하다	매우 엄하다.	사또 분부 지엄하니 인정일랑 두지 마라
형장가(刑杖歌)	투식(偷食)	공금이나 공곡(公穀)을 도둑질하여 먹음.	국곡 투식(國穀偷食)하였느냐 엄형 중치(嚴刑重治)는 무삼 일고
형장가(刑杖歌)	중치(重治)	무겁게 다루다.	국곡 투식(國穀偷食)하였느냐 엄형 중치(嚴刑重治)는 무삼 일고
형장가(刑杖歌)	항쇄족쇄(項鎖足鎖)	목에 씌우는 칼과 발에 채우는 차꼬	살인 도모(殺人圖謀)하였느냐 항쇄족쇄(項鎖足鎖)는 무삼 일고
형장가(刑杖歌)	석벽 강상(石壁江上)	바람벽같이 깎아지른 듯한 언덕의 바위와 그 아래의 강 위.	석벽 강상(石壁江上) 찬바람은 살 쏘듯이 드리불고
형장가(刑杖歌)	도화(桃花)	복숭아꽃	도화 유수(桃花流水) 묘연(渺然)히 똑 떨어져 굽이 굽이 굽이 솟아난다
형장가(刑杖歌)	유수(流水)	흐르는 물	도화 유수(桃花流水) 묘연(渺然)히 똑 떨어져 굽이 굽이 굽이 솟아난다
형장가(刑杖歌)	묘연(渺然)하다	그윽하고 멀어서 눈에 아물아물하다.	도화 유수(桃花流水) 묘연(渺然)히 똑 떨어져 굽이 굽이 굽이 솟아난다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버리다	버리다	세상(世上)의 버린 몸이 견무(畎畝)의 늘거 가니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견무(畎畝)	밭의 고랑과 이랑.	세상(世上)의 버린 몸이 견무(畎畝)의 늘거 가니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밭겉	바깥	밭겉 일 내 모르고 흐는 일 무스 일고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우국성심(憂國誠心)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 중(中)의 우국성심(憂國誠心)은 연풍(年豐)을 원호노라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연풍(年豐)	풍년이 듭.	이 중(中)의 우국성심(憂國誠心)은 연풍(年豐)을 원호노라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농인(農人)	농사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 농민.	농인(農人)이 와 이로디 봄 왓니 바티 가새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쇼보	농기구인 쟁기.	압집의 쇼보 잡고 뒷집의 짜보 내니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짜보	농기구인 따비.	압집의 쇼보 잡고 뒷집의 짜보 내니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동다	좋다	두어라 내 집부디허랴 늠허니 더욱 도타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단짜히	달구어진 땅이~	여름날 더운 적의 단짜히 부리로다
저곡전가팔곡	입립신고(粒粒辛苦)	نال알 하나하나가 모두 농부의	어스와 입립신고(粒粒辛苦) 어늬 분이 알

(楮谷田家八曲) 저곡전가팔곡	천사만종(千駟萬鐘)	피땀이 어린 결정체라는 뜻 많은 말이 끄는 수레와 많은 봉록.	으실고 이 밧기 천사만종(千駟萬鐘)*을 부러 무슴 허리오
(楮谷田家八曲) 저곡전가팔곡	솻	새끼	밤의란 스출 오고 나죄란 썬를 부여
(楮谷田家八曲) 저곡전가팔곡	썬	띠풀. 띠(식물)의 어린 꽃이 삭.	밤의란 스출 오고 나죄란 썬를 부여
(楮谷田家八曲) 저곡전가팔곡	종사(從事)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함.	내년(來年)희 봄 온다 허거든 결의 종사 (從事)허리라
(楮谷田家八曲) 저곡전가팔곡	새배	새벽	새배 빛나자 나셔 백설(百舌)이 소리한다.
(楮谷田家八曲) 저곡전가팔곡	백설(百舌)	지빠귓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 는 말.	새배 빛나자 나셔 백설(百舌)이 소리한다.
(楮谷田家八曲) 저곡전가팔곡	괴운	기운	밤스이 이슬 괴운에 얼마나 길었논고 허노 라.
(楮谷田家八曲) 저곡전가팔곡	도트라	명아주(나물)	보리밥 지어 담고 도트랏 킁을 허여
(楮谷田家八曲) 저곡전가팔곡	진시(趁時)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비골논 농부(農夫)들을 진시(趁時)에 머겨 스라.
(楮谷田家八曲) 저곡전가팔곡	아히	아이	아히야 흥 그릇 울녀라 친(親)히 맛바 보 내리라
논매기 노래	편편옥토(片片沃土)	어느 논밭이나 모두 다 비옥 함.	하늘님이 주신 보배 편편옥토(片片沃土)가 이 아닌가
논매기 노래	산이	광대나 재주꾼을 통틀어 이르 는 말. '논매기 노래'에서는 선소리꾼을 의미함.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 네
논매기 노래	일락서산(日落西山)	해가 서산으로 떨어짐.	일락서산(日落西山)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 (月出東嶺)에 달 돋는다
논매기 노래	월출동령(月出東嶺)	달이 동쪽 고개에서 솟아오름.	일락서산(日落西山)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 (月出東嶺)에 달 돋는다
어이 못 오던다	두지	뒤주. 쌀 같은 곡식을 담아 두 는 세간.	너 오는 길 우희 무쇠로 성(城)을 싹고 성 안헤 담 싹고 담 안헤란 집을 짓고 집 안 헤란 두지 노코 (후략)
어이 못 오던다	쌍(雙)비목	걸쇠를 거는 구멍 난 못.	(전략) 두지 안헤 궤(櫃)를 노코 궤 안헤 너를 결박(結縛)허여 노코 쌍(雙)비목 외 걸새에 (후략)
어이 못 오던다	수기수기	깊이깊이.	(전략) 두지 안헤 궤(櫃)를 노코 궤 안헤 너를 결박(結縛)허여 노코 쌍(雙)비목 외 걸새에 용(龍)거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즈 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정읍사(井邑詞)	하	시여. 이시여.	둘하 노피곰 도드샤
정읍사(井邑詞)	곰	앞말의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	둘하 노피곰 도드샤
정읍사(井邑詞)	-샤	-시여.	둘하 노피곰 도드샤
정읍사(井邑詞)	저재	시장	저재 녀리신고요
정읍사(井邑詞)	녀다	가다	저재 녀리신고요
정읍사(井邑詞)	-세라, -세라	혹시 그러할까 염려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기야 내 가논 디 점그를세라
정읍사(井邑詞)	어기야	여흥구, 조흥구	어기야
정읍사(井邑詞)	어기야 어강도리	후렴구	어기야 어강도리
용비어천가(龍飛御 天歌)	해동(海東)	발해(渤海)의 동쪽이라는 뜻으 로,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르 던 말.	해동(海東) 육룡(六龍)이 누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성(古聖)이 동부(同 符)허시니
용비어천가(龍飛御 天歌)	육룡(六龍)	조선을 창업한 6조를 가리킨 다.	해동(海東) 육룡(六龍)이 누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성(古聖)이 동부(同

			符)하시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천복(天福)	하늘이 내린 복.	해동(海東) 옥룡(六龍)이 노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성(古聖)이 동부(同符)하시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고성(古聖)	옛날의 성인(聖人). 중국 고대 왕조의 성군 혹은 창업주를 의미함.	해동(海東) 옥룡(六龍)이 노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성(古聖)이 동부(同符)하시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동부(同符)하다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	해동(海東) 옥룡(六龍)이 노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성(古聖)이 동부(同符)하시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불휘	뿌리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뭇씨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남근	나무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뭇씨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뭇다	움직이다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뭇씨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여름	열매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뭇씨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누인개국(累仁開國)	어진 덕을 쌓아서 나라를 만든다.	천세(千世) 우희 미리 정(定)하산 한수(漢水) 북(北)에 누인개국(累仁開國)하샤 북년(卜年)이 굶업스시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굶었다	끝이 없다	천세(千世) 우희 미리 정(定)하산 한수(漢水) 북(北)에 누인개국(累仁開國)하샤 북년(卜年)이 굶업스시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성신(聖神)	신(神)'을 의미하지만, 용비어천가 125장 맥락상 '후대의 임금'을 의미함.	성신(聖神)이 니스샤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넋우다	잇다	성신(聖神)이 니스샤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경천근민(敬天勤民)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함.	성신(聖神)이 니스샤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샤	-야	성신(聖神)이 니스샤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하	시여. 이시여.	성신(聖神)이 니스샤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가마귀 빠호는 골에	빠흠하다	싸움하다	가마귀 빠호는 골에 백로(白鷺)야 가지 마라
가마귀 빠호는 골에	-르세라	혹시 그러할까 염려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성년 가마귀 흰빛출 새올세라
뉘라셔 가마귀를 검고	반포보은(反哺報恩)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 보답한다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함으로써 효를 행함을 이르는 말.	반포보은(反哺報恩)이 귀 아니 아름다온가
뉘라셔 가마귀를 검고	숯다	슬퍼하다	스름이 저 시만 못하물 못니 슬허호노라
가마귀 가마귀를 좇추	-거고나	의도와 감탄을 나타내는 어미.	가마귀 가마귀를 좇추 들거고나 뒗동산(東山)에
가마귀 가마귀를 좇추	덜적이다	무슨 일이나 가리지 않고 참견하다	시논 날 못 가마귀 훈디 노려 뒗덤병 덤병 두루 덜져겨 뵙흐니 아모 그 가마귀 줄 몰니라
가마귀 가마귀를 좇추	빠흠하다	싸움하다	시논 날 못 가마귀 훈디 노려 뒗덤병 덤병 두루 덜져겨 뵙흐니 아모 그 가마귀 줄 몰니라
백사장(白沙場)	홍	홍료변(紅蓼邊)	여뀌.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 백사장(白沙場) 홍료변(紅蓼邊)에 구버기

료변(紅蓼邊)에			높이는 40~80cm이며 잎은 어긋나고 피침 모양이다. 6~9월에 꽃잎의 끝이 붉은색을 띠는 연녹색 꽃이 핀다. 잎은 매운맛이 나며 조미료로 쓰이기도 한다.	는 백로(白鷺)들아
백사장(白沙場) 룡변(紅蓼邊)에	홍	구버기다	구벽이다	백사장(白沙場) 룡변(紅蓼邊)에 구버기 는 백로(白鷺)들아
백사장(白沙場) 룡변(紅蓼邊)에	홍	구복(口腹)	먹고살기 위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입과 배.	구복(口腹)을 못 메워 더다지 굶니는다
백사장(白沙場) 룡변(紅蓼邊)에	홍	일신(一身)	자기 한 몸.	일신(一身)이 한가(閑暇)홀선정 슬져 무슴 허리오
백사장(白沙場) 룡변(紅蓼邊)에	홍	솔지다	살찌다	일신(一身)이 한가(閑暇)홀선정 슬져 무슴 허리오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비호다	배우다	이바 아희들아 내 말 드러 비화스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스라	-아라	이바 아희들아 내 말 드러 비화스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효제(孝悌)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일생(一生)의 효제(孝悌)를 닦가 어딘 일 흠 어더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일흠	이름	일생(一生)의 효제(孝悌)를 닦가 어딘 일 흠 어더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이시다	있다	내 몸의 온갖 흠이시면 놈의 말을 니르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스라	-아라	사름이 되여 이셔 용훈 길로 듯너스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언충신 행동경(言忠信行篤敬)	말은 미덥게 하고 행동은 공손하게 함	언충신 행동경(言忠信行篤敬)을 염려(念慮)의 닛디 마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용티곳	착하지	내 몸이 용티곳 아니면 동내(洞內)엔들 듯 니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동내(洞內)	동네 안.	내 몸이 용티곳 아니면 동내(洞內)엔들 듯 니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온	-은. 주로 피수식어가 행동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말을 삼가하야 노(怒)호온 제 더 츠아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실언(失言)	실수로 잘못 말함. 또는 그렇게 말함.	흔 번을 실언(失言)하면 일생(一生)의 뉘 웃브뇨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싸흠	싸움	놈과 싸흠 마라 싸흠이 해(害) 만흐뇨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관송(官訟)	관청의 송사나 시비.	크면 관송(官訟)이오 적으면 수욕(羞辱)이 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수욕(羞辱)	부끄럽고 욕됨.	크면 관송(官訟)이오 적으면 수욕(羞辱)이 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빈천(貧賤)	가난함.	빈천(貧賤)을 슬허 말고 부귀(富貴)를 불 워 마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부귀(富貴)	부유함.	빈천(貧賤)을 슬허 말고 부귀(富貴)를 불 워 마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인작(人爵)	사람이 주는 벼슬	인작(人爵)곳 닦그면 천작(天爵)이 오느니 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천작(天爵)	하늘이 주는 벼슬	인작(人爵)곳 닦그면 천작(天爵)이 오느니 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양즈(樣子)	얼굴의 생긴 모양.	나는 니저셔도 놈이 양즈(樣子) 보느니라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넉다	읽다	여가(餘暇)의 글 비화 넘어 못 미출 듯 허 여라
노처녀가(老處女歌)		금수	날짐승과 길짐승이라는 뜻으로, 모든 짐승을 이르는 말.	인간 만물 생긴 후에 금수 초목 짝이 있다

노처녀가(老處女歌)	정녀	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	혼자 살면 천년 살며 정녀 되면 만년 살까
노처녀가(老處女歌)	괴망	말이나 행동이 괴상하고 망측함.	괴망을 일삼으며 다만 한 딸 늙어 간다
노처녀가(老處女歌)	전전반측(輾轉反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전전반측 잠 못 이뤄 혼자 사설 들어 보소
노처녀가(老處女歌)	인황씨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인황씨 적 생긴 남녀 복희씨 적 지은 가취
노처녀가(老處女歌)	복희씨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인황씨 적 생긴 남녀 복희씨 적 지은 가취
노처녀가(老處女歌)	가취(嫁娶)	시집가고 장가들.	인황씨 적 생긴 남녀 복희씨 적 지은 가취
노처녀가(老處女歌)	침불안석(寢不安席)	걱정이 많아서 잠을 편히 자지 못함.	월명 사창 긴긴 밤에 침불안석 잠 못 들어
노처녀가(老處女歌)	숙맥불변(菽麥不辨)	콩인지 보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을 이르는 말.	부친 하나 반편이요 모친 하나 숙맥불변
노처녀가(老處女歌)	부음(訃音)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말이나 글.	아이더러 물어보니 외삼촌의 부음이라
노처녀가(老處女歌)	금명(今明)	오늘이나 내일 사이.	동편 집 용골녀는 금명간에 시집가네
노처녀가(老處女歌)	무정세월(無情歲月)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그동안에 무정세월 시집가서 풀련마는
노처녀가(老處女歌)	상처하다	아내의 죽음을 당하다.	김동이도 상처하고 이동이도 가처로다
노처녀가(老處女歌)	기처(棄妻)	조선 시대에, 남편이 자유로이 칠거지악을 저지른 아내를 버리던 일. 또는 그런 제도.	김동이도 상처하고 이동이도 가처로다
노처녀가(老處女歌)	아연듯	어느새	아연듯 춘절 되니 초목 군생 다 즐기네
노처녀가(老處女歌)	초목군생(草木群生)	풀과 나무, 그리고 기타 여러 생명체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	아연듯 춘절 되니 초목 군생 다 즐기네
노처녀가(老處女歌)	바자	대, 갈대, 수수깡, 싸리 따위로 발처럼 엮거나 결어서 만든 물건.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삭은 바자 쟁쟁하고 종달새 도루 뜬다
노처녀가(老處女歌)	녹양방초(綠楊芳草)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	녹양방초 저문 날에 해는 어이 수이 가노
노처녀가(老處女歌)	초로(草露)	풀잎에 맺힌 이슬.	초로 같은 우리 인생 표연히 늙어 가니

이 자료의 저작권은 임권의T(희파27)에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무료 배부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로,
 2차 저작물에 활용 / 배포 등의 활동을 금지합니다.